

9세기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의 唐 武寧軍 漣水縣에서의 활동 및 그 가치

許 逸* · 王 杰** · 孫光圻**

The Activities and Merit of SiUa People in Wuningjun at Lianshui in Tang
Dynasty around 9th Century—Emphasizing on Zhang Baogao

Hugh Ihl* · Wang Tie** · Sun Guangqi**

1. 서주 武寧軍에서의 漣水縣의 지위	
1.1	서주 武寧軍의 변천(變遷)
1.2	서주 武寧軍에서 漣水縣의 지위
2. 장보고와 漣水縣	
2.1	정년과 漣水縣

2.2 장보고와 漣水縣	
3. 신라인이 漣水縣에서의 활동	
3.1	漣水縣 신라방의 설치
3.2	신라방의 관리인원
4. 결 론	

장보고는 신라시기의 유명한 武將이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巨商이다. 그는 30세 전후하여 당나라에 와서 서주 무녕군의 “무녕군소장”으로 임직하였다. 서주 무녕군 경내에 유일하게 바다와 면해있는 州縣은 泗州 漣水縣이기 때문에 漣水縣이 고대 한·중교류에 있어서의 중요한 地位를 점하고 있으며,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의 그 지역내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장보고가 그후大海商으로 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독특한 학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서주 武寧軍에서의 漣水縣의 지위

1.1 서주 武寧軍의 변천(變遷)

중국 역사에 있어서 서주는 예로부터 군사요충

지대로서 그 자리위치가 매우 중요하였다. 안사의 亂후, 河朔지역에 번진이 할거하는 局面이 나타났는데, 당나라 정부에서는 서주가 “동쪽 끝을 통제하고 회화와 浙江, 福建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방 번진의 반란을 방어하고 강남의 경제중심을 보호하는 방어지역이라는 이유로 점차적으로 서주의 행정지위를 격상시켰다. 건중(建中)3년(728년)에 徐海沂密觀察使로 승격시키고, 정원(貞元)4년(788년)에는 다시 서사호(徐泗濠)3州절도사로, 영정(永貞)元年(805년)에는 또 “武寧軍節度, 徐泗濠等州觀察處置使”로 승격시켜 짧은 20여년간에 서주는 “세차례의 도약”을 거쳐 보통 주군으로부터 당왕조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강번(强藩)으로 급부상하였고, 軍政合一의 막강한 세력을 가졌다.

원화(元和)4년(809년), 서주 武寧軍절도사는 徐,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중국대련해사대학교 교수

泗, 濟 세 개의 州를 관할에 더하여 또 宿州(宿州) 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그때의 서주 武寧軍 절도사는 지역이 넓고 군사력이 막강하였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지금의 서주는 천리지역을 통치하고 물산이 풍부하다. 山川이 경내에 있고 군권을 가지고 있으며 16개의 도읍, 10만의 戶, 군사는 60 개의 旅가 있다.” 서주 경내에는 4州 16縣에 3만 7 천여 戶, 군사가 3만이나 되어 세력이 極盛期에 달하였다.

1.2 서주 武寧軍에서 漣水縣의 지위

당나라 때의 서주 武寧軍은 황해와 연결되어 있고, 대운하와 회하가 경내를 가로 흘러 南北水運의 요충지대였다. 당나라 황제도 詔書에서 “팽문(彭門 - 서주를 가리킴)重鎮은... 배가 다니는 요충지대이다.”라고 한적이 있다. 서주 경내의 여러 縣중에 서도 하천운수(河運)와 海運의 교차점에 놓여 있는 漣水縣의 지위는 더욱 중요하였다.

洹水縣의 古城은 지금 강소성 漣水縣 북쪽에 있다. 남북조시대에 송명제는 그 곳에 양분현(襄贲縣)을 설치하였는데, 수나라 개황(開皇)5년(585년)에 漣水縣으로 바꾸었다. 당 무덕(武德)4년(621년), 여기에 연주(漣州)를 설치하여 漣水縣을 관장하게 하였으나 정관(貞觀)元年(627년)에 연주를 폐하고 漣水縣을 사주(泗州)에 귀속시켰다. 서주 및 武寧軍 절도사의 질기에 따라 泗州 및 漣水縣도 정원 원년(788년)에 서주에 귀속되었는데, 서주 武寧軍의 강세를 힘입어 漣水縣의 잠재하였던 지리위치의 중요성도 급부상하였다.

1.2.1 서주 武寧軍에서 漣水縣은 제일 동쪽에 있는데, 武寧軍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연결된 현이었다. 『元和郡縣志』에 기재하기를 “바다는 (연수)현 동북 104里에 있다.”고 하였는데 武寧軍의 유일한 出海口였다.

해안선을 통제하는 질이의 관점에서 볼 때, 武寧軍이 漣水縣을 통하여 관할하는 해안선은 불과 30 km여서 북쪽의 평로절도사(平虜節度使)와 남쪽의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통제하는 수천km의 해안선과는 비길 바가 못되지만, 그는 마치 평로와

회남 두 개의 강대한 번진사이에 끼인 쇄기와 같이 남북 두 개의 연해 强藩의 완충지대였다(지도 참조). 이렇듯 漣水縣은 평로, 회남과 무녕 3대번진의 해안과 근해 해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점차적으로 북방 연해항운의 중요한 중추지역이 되었다.

1.2.2 漣水縣의 水運의 要衝지위로써 중요성을 더하여 주는 것은 그곳이 회하의 출해구에 자리잡고 있는 우월성 때문이었다.

당나라때의 회하는 총 길이가 1000여km로서 항운에 적합한 중요한 하천이었다. 이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운하의 南端과 北端인 변수(汴水)와 조거(漕渠)를 연결시킨 후 황해로 흘러든다(지도 참조). 엔닌은 그의 『임당구법순례행기』에서 “초주(楚州) 북쪽에 대회(大淮)가 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大淮가 가로질러 동해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도서를 잇는 회하는 남북을 잇는 대운하의 내하항로와 중국 북방 황해연안 항로를 연결하였다. 漣水縣은 바로 이러한 내하항로와 연해항로와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

회하가 대운하와 북방연해지역과 연결된 점에 대하여 당나라에 온 신라인은 일찍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또한 이를 적극 이용하였다. 8세기 및 9세기를 전후하여 신라인이 중국의 동남연해에서 산동반도의 해역에 이를 때, 연안항로를 따라 바로 북쪽으로 항해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고 대부분이 양주에서 대운하의 남쪽인 조거(漕渠)를 따라 북상하여 운하와 회하가 교차하는 초주(楚州)에 이른 후,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회하를 따라 회하의 출해구인 漣水縣에서 황해에 진입한 후 북상하여 산동으로 갔다. 개성(開成)4년(839년), 일본의 藤原常嗣사절단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에 바로 신라인譯語 김정남(金正南)의 인도하에 양주에서 출발하여 운하를 따라 북상하여 초주에 이른 후, 회하를 따라 漣水縣에서 황해로 진입하였다. 광명(廣明)2년(881년)신라의 使節團이 회남(淮南)을 방문하고, 중화(中和)4년(884년)신라인 최치원(崔致遠)이 회남에서 귀국할 때에도 모두 이 항로를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볼 때, 회하연안의 초주 및 그 下流 부근의 漣水縣에 신라교민이 거주하는

신라방(新羅坊)(本論文의 3 참조)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2. 장보고와 漣水縣

史料의 기록에 의하면 장보고는 당나라의 “武寧軍 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활동 범위는 武寧軍의 관할구역인 서, 사, 호, 속 등 4개 州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주의 漣水縣도 그의 활동범위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가 漣水縣에서 활동한 최초의 기록은 장보고의 절친한 친구인 정년(鄭年)에 대한 사료의 기록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2.1 정년과 漣水縣

정년과 漣水縣의 관계는 이미 당나라 두목(杜牧)의 『범천문집』에 명백한 기록이 있다.“(장보고와 정년은) 모두 싸움을 잘하는데, 말을 타고 창을 다루는데 그들의 본국에서나 서주에서 당할 자가 없었다.(정)년은 또한 물 재주가 좋아 50리를 헤엄칠 수 있다. ……보고는 그때 이미 고국에 돌아가 귀하게 되었고, 정년은 착오를 범해 실직하여 사주 漣水縣에서 빈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정년이 漣水縣의 戎將 풍원규(馮元規)에게 말하기를 ‘나는 귀국하여 장보고에게 의탁하겠소’하니 원규가 권하기를 ‘당신과 보고와의 관계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의 손에 죽으려 가오’ 정년은 ‘빈한하게 죽을 바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낫지, 하물며 고향에서 죽는데야’고 하며 떠나갔다.”

위의 사료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사실을 알 수 있다.

2.1.1 풍원규와 정년의 대화로부터 볼 때, 풍원규는 장보고와 정년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풍원규는 이미 전에 장보고를 알고 있고 또한 그와 동료로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목하여야 할 것은 풍원규와 정년은 장보고가 귀국한 후 발달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듯한데, 이는 계속적으로 신라인의 라인을 통하여 장보고의 소

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2.1.2 위의 기재에서도 알 수 있는바, 정년은 漣水縣의 戎將 풍원규와 매우 친숙한 관계이고 실직한 후 한동안은 漣水縣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漣水縣과 어떠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위의 사료로부터 새로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사료에 따르면 정년은 “바다에서 50리를 헤엄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을 聯想하게 한다. 즉 “武寧軍 소장”인 정년의 이러한 묘기는 바다에서만 겸종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바다에서만 그 묘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武寧軍 경내에는 漣水縣만이 바다와 인접하여 있기에 우리들은 정년이 武寧軍에 있을 때 漣水縣에서 임직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는 또한 그가 실직한 후에 武寧軍의 지휘부와 제일 먼 漣水縣을 선택하여 “漣水縣에서 빈곤한 생활을 한”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만약 진일보하여 위의 漣水縣의 戎將 풍원규가 장보고와 정년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또 다음에 언급하게 될 장보고의 심복인 최훈(崔暉)이 漣水縣에 대하여 각별히 미련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보고가 武寧軍에 있을 때, 역시 漣水縣에서 任職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2.2 장보고와 漣水縣

장보고와 漣水縣의 관계에 대하여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더욱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엔닌이 당나라에 있을 때, 開成 4년(839년) 등주에서 장보고 수하의 심복 大將 “청해진병마사(清海鎮兵馬使)” 최훈을 알게 되었다. 그때, 최훈은 늘 장보고의 명을 받고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의 임시신분으로 당나라와 신라를 빈번히 오가며 무역을 하였는데, 그의 발자취는 산동과 강소연해지역에 모두 남아 있다. 그중 엔닌의 기록으로부터 볼 진데, 최훈과 漣水縣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였다.

2.2.1 엔닌이 산동의 등주에 閑居할 때에 최훈을 만난적이 있다. 최씨는 그때 엔닌에게 약속하기를 “봄이 되면 漣水縣에서 특히 선박을 파견하여 (엔닌을) 淮南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비록 그후 엔닌이 생각을 바꾸어 오대산으로 갔지만, 최훈이 漣水縣으로부터 선박을 파견하여 등주에 가서 엔닌을 마중하려 한 것으로부터 보아 최훈과 漣水縣의 관계를 알 수 있다.

2.2.2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최훈은 엔닌에게 편지를 보내여 “스님이 불법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때에 이를 편지로 漣水縣에 알리면 (최)훈은 천방백계로 (스님을)보낼 것이며 같이 일본으로 갈 것이다.”고 하였는데, 편지의 문맥으로부터 보아 최씨는 늘 漣水縣에 드나들거나 常駐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2.2.3 최훈은 그후 “신라에 돌아간 후 국난을 맞아 漣水縣에 피난하여 살았다.” 즉 장보고가 신라에서 염장에 의하여 살해된 후, 최훈도 당나라로 망명하여 漣水縣성내의 신라방에 은거하여 살았으며 그때 다시 엔닌을 만났다. 그로부터 漣水縣은 최훈의 최후 망명지가 되었는바, 그와 漣水縣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보고의 친구인 정년의 漣水縣에서의 활동 및 장보고의 심복인 최훈이 漣水縣에서의 활동은 모두 간접적으로 장보고와 漣水縣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신라인이 漣水縣에서의 활동

3.1 漣水縣 신라방의 설치

당나라때 중국 북방의 沿海 州縣에는 신라인의 활동이 많았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에 의하면 산동반도의 登州로부터 화남의 楚州에 이르기까지 登州文登縣勾當新羅所, 등주신라관, 등주적산신라원, 청주신라원,泗州漣水縣신라방, 초주신라방등 여러 곳의 신라인과 관련되는 기구가 있었다.

3.1.1.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 이를 구당신라암

아소(勾當新羅押衙所)라고도 한다. 당나라때에는勾當 某某職으로 授權委任하여 管理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勾當官이라고도 한다. 구당신라소는 당나라때 신라사무소를 관장하는 地方機構를 말한다.

新羅館. 관가에서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신라의 사절을 접대하는 호텔이나 驛站을 말한다. 당나라 때에 영남에다 南海 여러 나라 사절을 접대하는 “王館”을 설치하고, 장안에다는 주변 국가의 사절을 접대하는 “四方館”을 설치하였으며 송나라 때에 州郡에다 “高麗館”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驛站을 가리킨다.

新羅院. 신라인이 당나라에 설치한 불교 寺院을 말한다.

3.1.2 신라방.坊은 고대 시내 居民區의 통칭이다. 당나라의 도시는 대부분이 약간의 “坊”으로 나뉘어 서민들의 생활구역으로 하였다. 『唐六典·戶部尚書』에서 말하기를 “兩京 및 州縣의 성곽내에는坊으로 나뉘고, 교외는 村으로 한다.” 『舊唐書·食貨上』에서도 “읍(邑)에서 사는 자는坊이라 하고 田野에서 사는 자는 촌이라 한다.” 당나라의 서울인 장안에는 110개의 방이 있었고, 東都인 낙양(洛陽)에는 108개의 방이 있었다.

당나라의 일부 涉外 도시에는 대량의 외국인이 집거하고 있었으므로 점차로 외국인만 집거하여 생활하는 방이 출현하였다. 당나라 때의 최대의 대외무역항구인 廣州에는 이러한 방인 蕃坊이 있었다. 당나라 사람 방천리(房千里)의 기록에 의하면 “광주의 번방에 있을 때, 그들이 만든 음식에는 糖蜜을 많이 넣었다.” 통상적으로 蕃坊은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동으로 잡거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주혹(朱或)은 “광주의 번방은 해외 여러나라 사람이 집거하여 있다.”고 하였다. 단독 혹은 하나의 주요한 외국교민이 집거하여 있는 居民지역은 그 모국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는데, 신라방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당나라때 신라인이 집거하는 신라방은 다만 초주와 漣水縣 두 개의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 중 漣水縣은 유일하게 縣城에 신라방을 설치한 곳

이다. 작은 현성내에 전문적으로 신라인이 거주하는 신라방이 있어 신라의 교민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해외교류가 빈번한 당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사실상, 신라방이 있는 漣水縣과 초주 두곳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리위치적으로 볼 때, 漣水縣은 그가 속한 泗州와는 160里(唐里, 아래도 같음)이고 서주와는 750리이지만 초주와는 60리밖에 안된다. 그리고 두 도시는 모두 회하의 하류에 자리잡고 있는데 초주에서 배를 타고 반나절이면 漣水縣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였다. 또 모두 신라인이 중국으로 오는 수로의 중심항로에 있으며 신라인이 항해하여 초주에 가려면 반드시 먼저 漣水縣을 경유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두 곳의 신라방은 하나의 회하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신라 교민의 집거구역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3.2 신라방의 관리인원

관련사료의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신라방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관리인원이 있었다.

3.2.1 總管(총관)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에 의하면 초주와 漣水縣의 신라방에는 모두 總管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신라인이 맡고 있었으며 “總管當州(縣)”이라고 칭하였다. 일본 학자 小野勝年의 연구에 의하면 “總管當州(縣)”는 “총관 당주(현)신라인사무대사(總管當州(縣)新羅人事務大使)”의 약칭일 것이다. 총관의 직책은 주로 신라방 내의 사무를 관장하고 당나라 지방 州縣의 정부와 교섭하는 일이다. 엔닌이 초주의 신라방에 이르렀을 때에 총관 설전(薛詮)은 “州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入州計會)”하였었고, 漣水縣 신라방의 總管도 “서류를 작성하여 현의 官衙로 들어가서 長官을 만났다.”는 것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당나라의 사료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등지의 외국 상인이 집거하는 번방에도 蕃長을 설치하여 공무를 장관하게하며 외상 유치를 책임지게 하였다. 『萍州可談』에서 “蕃長 1인을 두어 번방의 공무를 관장하게 하며, 외상 유치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그의 직책은 신라방의 총관직책과

유사한 것으로 번장의 직책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나라의 행정제도에 의하면 “里와坊, 村에는 모두 正을 두어 試察을 책임지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신라방(번방)에서도 당나라의 행정제도를 실시하였겠지만 다만 총관(혹은 번장)으로坊正의 직책을 대행하게 하였을 뿐이다.

3.2.2 역어(譯語). 즉 통역을 말한다. 고대 중국의 통역은 모두 일정한 사회지위가 있었는데, 예컨대 한나라의 역장(譯長), 魏晉의 역사(譯使), 宋元의 역사(譯史) 등이 있었다. 당나라의 신라방에도 역어가 있었는데 통역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총관을 보좌하여 관련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신라인이 이 직책을 맡았다. 초주의 신라방에는 역어인 유신언(劉愼言)이 있었는데 그는 韓, 日, 漢語를 능통하게 하였다. 엔닌이 초주의 신라방에 왔을 때, 유신언은 懸衙에 가서 “用物計會本案”하고 총관과 같이 “入州計會”하였고, 엔닌이 떠날 때 유신언은 또 “서류를 등주로 송부하고, 타향에서 온 사람들의 안착을 주선하였다.” 그후, 유신언은 초주 신라방 역어의 신분으로 직접 설전의 직무를 대신하여 신라방의 總管職을 담임하였는바, 역어의 지위는 이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3.2.3 전지관(專知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엔닌이 漣水縣 신라방에 이르렀을 때 “총관 등이 (엔닌을) 引導하려 하자 전지관이 불응하였다.”고 하였는데, 전지관은 신라방의 총관 밑에서 신라방을 통과하는 손님을 접대하는 하층 官吏로서 응당 신라인이 맡았을 것이다.

3.2.4 단두(圓頭). 당송이후, 도시의 모종 업종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유세명언』(論世明言) 卷 27에는 “臨安 결인들 중에 우두머리를 ‘단두’라고 하는데 그가 여러 결인을 거느린다.” 엔닌이 초주 신라방에 도착하였을 때 총관 유신언은 “전문인원을 파견하고 또 단두 一人을 시켜 옷가지와 짐을 나르게 하여 정부 驛站에 편히 지내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단두는 그 곳에서 화물의 船積과 揚陸을 책임지는 자로서 신라인이 담임하였다.

4. 결 론

위의 것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1 장보고가 “소장”으로 재직한 적 있는 서주 武寧軍경내에 漣水縣은 유일하게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州縣이고, 또한 유일한 출해구이다.

4.2 漣水縣은 무녕, 평로, 회남 3대 강변의 교차점에 있고, 중국 북방연해 항운의 중요한 거점인 동시에 회하의 입해구에 자리잡고 있어 당나라의 강운 항로와 연해항로가 연결되는 곳에 있어 그 위치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4.3 장보고의 친구인 정년의 漣水縣에서의 활동 및 장보고의 심복인 최훈의 漣水縣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볼 때, 장보고와 漣水縣의 밀접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4.4 漣水縣과 그 이웃인 초주는 당나라 때에 신라방을 설치한 두 개의 도시로서 두 곳은 아주 가까워 회하와 인접한 신라고민 집거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신라방은 총관, 역어, 전지관, 단두 등인원을 통하여 효과적인 管理를 하였다.

4.5 위의 분석으로부터 종합하여 볼 때, 장보고가 중·한 항해무역교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武寧軍소장”으로 있을 때 漣水縣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바로 漣水縣의 중요한 항운중추지역의 위치로 인하여 그는 중·한 사이의 해상무역의 내용과 항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漣水縣에 많은 신라인이 집거해 있는 객관현실은 그로 하여금 신라인의 국민이익의 所在와 항해의 활동능력에 대하여 파악하게 되었을 것이다.